

## **‘노동자대표위원회’ 도입 등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1. 관련 기사

- 7.15.(수) 매일경제(온라인), “노동법에 이미 기업 혼란 ... ‘상설 노동자궤’ 서두를 일인가”

- 고용노동부가 유명무실했던 근로자대표제를 실질화하겠다고며 ‘노동자대표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고용부는 상설 노동자대표위원회를 도입해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와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 이런 상황에서 상설 노동자대표기구까지 도입되면 노조·근로자대표·노사 협의회가 병존하는 복잡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 2. 설명 내용

- 정부는 대화와 상생의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장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동자대표위원회 도입을 국정 과제로 검토 중임

- 관련 추진 방안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노동자의 주요 근로조건 결정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표 선출절차, 지위,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20년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         |     |     |                    |
|-------|---------|-----|-----|--------------------|
| 담당 부서 | 노사협력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박은경 (044-202-7587) |
|       | 노사협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혜진 (044-202-7589) |
|       | 근로기준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송유나 (044-202-7526) |
|       | 근로기준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재인 (044-202-7544) |

